



Background for 2019 Reorganiz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2018 Member Survey Results

2019년 대한영상의학회지 개편에 대한 배경:
2018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Jung Im Jung, MD* 

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Launched in 1964,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JKSR) has served a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KSR). However, with establishment of the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 an entirely English journal, in 2000 and listing of the KJR in the SCI(E), KJR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 of the KSR. Therefore, the identity of JKSR needs to be restructur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JKSR.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ptember 2018 with 10 questions through on-line and mobile, and 553 members gave respons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bout 75% of the respondents read more than one JKSR article a year, mostly through on-line. All types of papers, including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and review article were being read. The most common reason for contributing articles to the JKSR was submission for the radiology board examination, and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contributing articles to the JKSR was non-recognition of the publication in JKSR as achievement in universities because JKSR is not indexed in SCI(E). Many respondents were hoping for dealing with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and health policies in radiology as the future role of JKSR. Based on these surveys, we plan to reorganize JKSR in 2019, which we would like to introduce in this paper.

Index terms Radiology; Publishing; Publication; Surveys and Questionnaires

서론

대한영상의학회지(이하 대영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대표 공식잡지로 1964년 5월 “大韓

Received January 4, 2019
Revised January 22, 2019
Accepted January 23, 2019

*Corresponding author

Jung Im Jung, MD
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22 Banpo-daero,
Seocho-gu, Seoul 06591, Korea.

Tel 82-2-2258-1435

Fax 82-2- 599-6771

E-mail jijung@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RCID iD

Jung Im Jung 

[https://](https://orcid.org/0000-0001-8264-9388)

orcid.org/0000-0001-8264-9388

放射線醫學會雜誌”라는 학술지명으로 창간되었다(1, 2). 창간 당시에는 연 1회로 출간하였으며 1972년부터 연 2~4회, 1982년부터는 계간지, 1985년부터는 격월간지, 그리고 1994년부터 월간지로 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잡지명도 처음 “大韓放射線醫學會雜誌”에서 1972년 “大韓放射線醫學會誌”로 변경하였고 1991년 27권 2호부터는 “대한방사선의학회지”로 한글로 표기가 되었으며, 학회명이 대한영상의학회로 바뀌면서 잡지명도 2004년 50권 4호부터 “대한영상의학회지”로 바뀌었다. 학회지의 영문 표기도 “The Korean Journal of Radiology”에서 1972년 “Journal of the Korean Radiological Society”로 변경되었고 학회의 영문 표기가 변경되면서 2009년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가 되었다(3, 4).

대영지는 논문의 초록과 그림을 제외한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한글 잡지였으나 2007년 56권 1호부터 한글 논문과 영어 논문을 같이 실기 시작하였고(5), 현재는 한 호 안의 영어 논문의 수가 한글 논문의 수보다 많다.

그동안 대영지가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영상의학회의 대표 잡지였으나 국제의학학술지 색인등재를 위한 영문잡지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 (이하 KJR)가 2000년에 신설되고(6), 이어서 KJR이 PubMed와 SCI(E)에 등재되면서 대한영상의학회의 학술적 대표잡지로서 중심이 KJR로 옮겨가게 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논문 투고수도 점차 줄고 있어 대영지의 존폐유무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만일 유지한다면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9일간 진행하였으며 총 553명의 회원이 답변하였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총 4가지 항목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문항은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였다(Table 1).

응답자의 분포는 대학병원 교직원이 약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봉직의(28.4%), 전공의(11.6%)의 순이었다. 대영지에 최근 3년간 투고한 경험은 응답자의 약 40%가 있었고, 2회 이상의 투고 경험도 17%에 달했다. 투고 원고의 종류는 증례보고가 가장 많았고(50.8%), 이어서 원저(39.9%), 종설(4.6%)의 순이었다. 논문 투고 잡지로 대영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투고가 가장 많았고(61.6%),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채택률(18.9%), 성과 및 업적 보고를 위해 단기간 내 출간 필요(13%) 순이었다. 기타 이유로 시선을 끌었던 것은 우리나라 정책 관련 내용으로 정책 입안의 근거마련을 위해서가 있었다. 대영지에 투고하지 않는 이유는 SCI(E)가 아니어서 근무기관에서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컸으며(59%), 이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학병원 교직원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복잡한 투고 절차와 늦은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약 3% 정도였다. 특이하게 기타 응답자가 많았으나(32.1%), 그 기타 내용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었다. 설문응답자 중 봉직의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기타의 내용으로 논문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나 여유가 없음 등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약 75%의 응답자가 최근 3년간 대영지를 읽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인쇄물보다는 잡지홈페

Table 1. Questions and Answers about JKSR

Question (Total no. of Respondent)	Answer	Respondents (n, %)
1. What is your position? (553)	1. University Hospital faculty	264 (47.8)
	2. Hospitalist	157 (28.4)
	3. Resident	64 (11.6)
	4. Private physician	25 (4.5)
	5. Fellow	24 (4.3)
	6. Medical officer	19 (3.4)
2. Have you submitted an article to JKSR as a first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in the last three years? (553)	1. No	333 (60.2)
	2. Once	124 (22.4)
	3. More than once	96 (17.4)
2-1. If you have submitted an article to JKSR, what kind of manuscript have you submitted? (multiple choices possible) (368)	1. Case report	187 (50.8)
	2. Original article	147 (39.9)
	3. Review	17 (4.6)
	4. Pictorial essay	12 (3.3)
	5. Special report	5 (1.4)
2-2. Why did you choose JKSR for submission of your manuscript? (370)	1. To fulfill the requirement for board examination	226 (61.1)
	2. High acceptance rate of manuscript	70 (18.9)
	3. Urgent publication required for performance and achievement reporting (satisfying research achievement and promotion standards)	48 (13.0)
	4. Others	26 (7.0)
2-3. Why did you not choose JSKR for submission of your manuscript? (268)	1. Because JKSR is not a SCI(E) journal, publication in JSKR is not recognized as achievement	158 (59.0)
	2. Others	86 (32.1)
	3. Long time from submission to decision	17 (6.3)
	4. Complicated submission process	7 (2.6)
3. Have you ever read the articles of JKSR in the last three years? (552)	1. More than once in six months	193 (34.9)
	2. More than once in a year	124 (22.5)
	3. More than once in a month	96 (17.4)
	4. No	139 (25.2)
3-1. If you have read the articles of JSKR, through which route do you read? (459)	1. Journal home page	235 (51.2)
	2. Google	116 (25.3)
	3. Printed book	86 (18.7)
	4. Others	22 (4.8)
3-2. If you have read the articles of JKSR, what kinds of articles do you read? (multiple choices possible) (849)	1. Original article	305 (35.9)
	2. Case report	256 (30.2)
	3. Review	123 (14.5)
	4. Pictorial essay	118 (13.9)
	5. Special report	47 (5.5)
3-3. If you have not read the articles of JKSR, what is the reason? (153)	1. Not found in PubMed	60 (39.2)
	2. No useful articles	50 (32.7)
	3. Others	29 (18.9)
	4. Written in English	14 (9.2)

Table 1. Questions and Answers about JKSR (continued)

Question (Total no. of Respondent)	Answer	Respondents (n, %)
4. In what direction should JKSR advance in the future? Please describe it freely (173)	1. Switching contents (increase reviews and articles on health policy for residents, private physicians, and hospitalists)	61 (35.3)
	2. Maintaining the role of the journal for board examination requirements for residents	21 (12.1)
	3. Maintaining present condition	20 (11.6)
	4. All articles written in Korean	17 (9.8)
	5. All articles written in English and promotion to SCI(E) by combining with KJR or becoming a second journal to KJR	15 (8.7)
	6. Improve the journal system	14 (8.0)
	7. Improve the quality of the journal by reducing the number of case reports and lowering acceptance rate	10 (5.8)
	8. Switching the journal to a case report journal	10 (5.8)
	9. Closure of JKSR	5 (2.9)

JKSR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KJR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이지나 구글(Google) 검색 등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읽고 있었다(18.7% vs. 76.5%). 읽는 원고의 종류는 원저(35.9%), 증례보고(30.2%), 종설(14.5%), 임상화보(13.9%), 특별기고(5.5%)의 순이었 고, 대영지 게재 논문 중에 증례보고의 비율이 높는데 원저 못지않게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 영지를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 학술지 검색엔진인 PubMed 등으로 검색되지 않는다 (39.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영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145명이 응답하였다. 2가지 이상 의견을 제 시한 응답자도 있어 제시된 의견을 범주화하여 분류하였을 때 총 173개의 의견이 있었다. 가장 많 은 의견은 내용전환에 대한 요구였다(35.3%).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를 위한 최신지견 및 교육적 인 임상화보, 종설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종설, 특별기고, 정책 이슈 등을 많이 실는 잡지가 되었으 면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의 의견으로 가장 많은 것은 전공의 전문의 자격시험용 논문 투고 잡 지로서의 유지(12.1%)와 현행유지(11.6%)였고, 이어 전체 논문의 한글 전환을 9.8%의 응답자가 제시하였다.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어 전체 논문의 영문화와 KJR과의 통합이나 부속잡지로서 SCI(E)로의 전환을 8.7%가 제시하였다. 이외에 시스템 관련 개선요구가 8%, 채택률을 낮추고 증 례보고 수를 줄여달라는 잡지의 질 관리 요구가 5.8%, 완전한 증례집으로 전환이 5.8% 있었고, 폐 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2.9% 있었다(Table 1).

고찰과 개편 제안

설문지를 통한 대영지의 현황은 대학병원의 교원뿐만 아니라 봉직의, 개원의가 많이 읽고 있으 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읽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법과 온라인 전용 잡지 (on-line only journal)로의 개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전공의 논문 투 고 잡지로서의 역할은 투고자의 요구가 높으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계 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대영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

한 의견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전문의 평생 교육(continuous medical education)과 영상의학과 정책 이슈를 다루는 협회지로서의 역할을 추진할 것인가와 KJR의 부속잡지로서 영문화 하여 SCI(E)로 등재를 목표로 할 것인가이다. 설문지로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은 협회지로서의 역할을 더 바라고 있었다.

이에 대영지 편집위원회는 2019년에 대영지의 대대적인 개편을 기획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매 호당 세부전공 분야별 특별호가 구성되어 관련 분야의 최신지견과 중요지식에 대한 종설을 5편 이상 게재하고,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월간 발행을 격월간 발행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한글 잡지로의 고유성과 독자의 가독성을 살려서 특별호 종설은 모두 한글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의료정책 관련 논문 투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원저, 증례보고, 임상화보 등의 학술논문의 투고와 게재는 계속될 예정이다.

많은 회원의 참여로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대영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획한 2019년 대영지의 새로운 개편이 잘 정착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disclose.

REFERENCES

1.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The 50-year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vailable at: <http://www.radiology.or.kr/about/?subid=2&dbg=2&rta=3&ptab=2&stab=2&content=1>. Accessed Jan 2, 2019
2. Choe J. History of the Korean Radiology Association. *J Korean Radiol Soc* 1964;1:5-8
3.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rchive. Available at: <https://jksronline.org/index.php?body=archive>. Accessed Jan 2, 2019
4.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The 70 year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1st ed. Seoul: Ilchokak 2015:136-143
5.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ume 56(1); Jan 2007. Available at: https://jksronline.org/search.php?where=asummary&id=56_1&code=0016JKRS&type=TYPE2. Published 2007. Accessed Jan 2, 2019
6. Korean Journal of Radiology. About Us. Available at: <https://kjronline.org/index.php?body>AboutUs>. Accessed Jan 2, 2019

2019년 대한영상의학회지 개편에 대한 배경: 2018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정 정 임*

대한영상의학회지(이하 대영지)는 1964년 창간 이래 대한영상의학회의 공식대표잡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 영문잡지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 (이하 KJR)가 신설되고 KJR이 국제학술지색인에 등재되면서 대표학술지의 중심이 KJR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대영지의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영지의 독자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에 10개의 문항으로 온라인(on-line)과 모바일(mobile)로 시행하였으며 553명의 회원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영지는 응답자의 약 75%가 1년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읽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영지를 접하고 있었다.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 모든 논문 종류를 골고루 읽고 있었다. 대영지에 논문을 투고한 이유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전공의 논문 투고가 가장 많았고, 투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영지가 SCI(E)가 아니어서 대학의 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전문의 평생교육과 영상학과 정책이슈를 다루는 협회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은 응답자가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대영지의 개편을 기획하였고 이를 함께 소개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영상학과